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개막 2연승 '신바람'

첫 경기 경남개발공사 28-25 승 이어 대구시청 24-18 꺾어 강경민·김지현·원선필 등 주전 골고루 활약...시즌 출발 굿~

올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는 광주도시공사가 개막 후 2연승을 달성했다.

광주도시공사는 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대구시청과 경기에서 24-18(14-10, 10-8)로 이겼다.

경남개발공사를 꺾고 개막 첫승을 신고한 광주도시공사는 대구시청까지 제압, 시즌 2연승을 거두며 탄탄한 전력을 과시했다. 개막전 타 팀 감독들이 SK 슈가글라이더즈와 함께 2강으로 꼽은 광주도시공사는 평가에 걸맞은 실력을 선보였다.

강경민이 9골, 6어시스트로 승리를 견인했고 원선필이 4골, 서아루·정현희가 각각 3골을 보태 여유있게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원선필은 경기 MVP에 선정됐다.

골키퍼 손민지는 19개 슈트 가운데 9개(방어를 47.37%), 박조은은 13개 슈트 가운데 6개(46.15%)를 막아내 승리를 뒷받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일 나란히 6골씩 넣은 강경민과 김지현을 앞세워 경남개발공사를 28-25로 꺾었다.

강경민과 김지현이 나란히 6골씩 넣었고, 송혜수도 5골을 터뜨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올시즌을 앞두고 재입단한 김금순은 수비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광주도시공사는 개막 후 2경기를 치른 결과 경기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020-2021시즌 정규리그 4위, 통합 3위를 달성했고, 2021-2022시즌에는 정규리그 2위,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력을 겹개로 입증했다.

오세일 감독은 대구시청전을 마친 뒤 "노마크 찬스도 적잖았고 좋은 슈트찬스도 많았는데 자질한 선수들이 나오는 바람에 전반전에 어렵게 경기를 한 것 같다. 이겼지만 만족스러운 경기내용은 아니었다"면서 "외부에서 우승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선수들이 부담을 갖지 않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강해 13일 SK전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정현희가 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SK핸드볼 코리아리그 대구시청전에서 수비망을 뚫고 슈팅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한국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쇼트프로그램을 연기하는 차준환. /연합뉴스

피겨 차준환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우승

3월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2·고려대)이 2023-2024시즌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차준환은 8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제77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1.27점, 예술점수(PSC) 89.90점에 감점 1점을 합쳐 합계 170.17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101.04점)를 합쳐 최종 총점 271.21점을 받은 차준환은 김현겸(한광고·237.23점)을 큰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까지 석권하며 가볍게 새 시즌 태극마크를 달았다.

아울러 1, 2차 선발전 점수를 합산해 국내 남자 싱글 선수 1명에게 주어지는 세계선수권 티켓까지 차지했다.

2023 세계선수권대회는 3월 20일부터 일본 사

이타마에서 열린다.

영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차준환은 첫 번째 연기 과제인 고난도 퀴드러플 살코 점프를 성공하며 감동한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과제인 퀴드러플 토티프를 시도하다 넘어지면서 타격을 받았다. 이 여파로 차준환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트리플 러츠 단독 점프로 수행했으나 이어진 트리플 플립에서 트리플 루프를 붙여 뒤뚱하며 만회했다.

플라이 카멜 스피드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드로 숨을 돌린 차준환은 유연한 스텝 시퀀스로 관중들의 박수를 끌어냈다.

후반부 점프는 다소 불안했다.

차준환은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클린 처리했지만, 이어진 트리플 악셀-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싱글(1회전) 악셀 단독 점프로 소화했다.

그는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러츠에 싱글 오일러와 트리플 살코를 붙이며 점프 과제를 모두 마쳤다. 이후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드와 코레오 시퀀스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페퍼스 연승 좌절...현대건설에 0-3 패



시페퍼스 이한비가 지난 7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현대건설전에서 스파이크 하고 있다. <KOVO제공>

시즌 첫 연승을 노렸던 광주시페퍼스가 리그 1위 현대에 무릎을 꿇었다.

광주시페퍼스는 7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원정경기에서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3-0(12-25, 20-25, 15-25)으로 패했다.

개막전 포함 17연패 늪에 빠졌다가 지난해 12월 31일 한국도로공사를 3-1로 꺾고 힘겹게 시즌 첫승을 거둔 페퍼스는 첫 연승 달성에는 실패했다.

최하위 페퍼스는 1승 18패(승점 4)를 기록 중이다. 창단 이래 이날까지 현대건설과 통산 9차례 맞붙어 모두 패했다.

페퍼스는 이한비와 니아 리드 좌우 쌍포가 터지지 않아 고전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점수를 뽑아내지 못했다. 페퍼스는 3세트를 통틀어 47점에 그쳤고 현대는 75점을 뽑아냈다.

니아 리드는 공격점유율 32%대였으나 36차례 공격에서 13점을 따내는 데 그쳤다. 이한비도 38차례 공격전에서 12점을 뽑아내는데 그쳤다. 팀

전체 공격 성공률(27.68)에서도 42%를 기록한 현대에 밀렸다.

리드 불안도 여전했다. 3세트를 통틀어 현대건설에 서브 에이스를 6개나 내줬다. 공격 옵션이 사실상 이한비와 니드 좌우 쌍포뿐인 페퍼는 다양한 공격 루트에서 점수를 뽑아낸 현대에 밀렸다. 현대 미들블로커 양효진은 15점을 기록했고 부상 중인 야스민의 빈자리를 메우는 아포짓 스파이커 황연주도 12득점으로 활약했다.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도 10점을 올렸다.

1세트 12점에 그친 페퍼스는 2세트에서 20-21로 추격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대 황연주에게 후위공격을 허용한 데 이어 고예림에게 서브 에이스를 허용, 20-23으로 스코어가 벌어졌다. 이어 추격 찬스에서 이한비의 오픈 공격이 현대 미들블로커 이다현에게 두차례나 잡히면서 세트를 내줬다. 3세트도 1세트와 같은 무기력한 플레이로 15점을 뽑아내는 데 그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구 황제' 쿠드롱 시즌 첫 우승...통산 7승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웰컴저축은행)이 뒤늦은 시즌 첫 우승을 신고했다.

쿠드롱은 5일 밤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챔피언십 PBA 결승에서 같은 벨기에 출신 선수인 에디 레펜스(SK렌터카)를 세트 점수 4-1(15-0 15-11 15-12 4-15 15-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시즌 6차 투어에서야 첫 우승을 거둔 쿠드롱은 자신이 보유한 PBA 통산 최다 우승을 7승으로 늘렸다.

아울러 결승전에만 진출하면 모두 우승을 차지하

는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이번 경기에서도 뽐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1억원과 랭킹 포인트 10만 점을 추가한 쿠드롱은 종전 시즌 랭킹 7위에서 1위로 단숨에 점프했다.

또한 통산 누적 상금 8억8900만원으로 2위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조트)의 6억4100만원과 격차를 벌렸다.

쿠드롱은 앞선 8강전에서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그리스·하나카드)를 상대로 3세트를 단 7이닝 45점으로 끝내며 PBA 역대 세트제 최고 기록인 6.429의 에버리지를 달성, 대회 최고 기록을 세

운 선수에게 주는 웰벵텀랭킹도 수상해 상금 400만원까지 챙겼다.

이번 대회 막강한 공격력을 뽐낸 쿠드롱은 결승전 첫 세트부터 상대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고 15점을 채워 기선을 제압했다.

여세를 몰아 3세트까지 내리 따낸 쿠드롱은 4세트를 내줬지만, 5세트를 15-7로 여유 있게 끝내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올 시즌 앞선 5차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쿠드롱은 "그래도 세 차례 4강에 진출했기에 충분히 잘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대치가 높아져서 못한 것처럼 보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고의 컨디션이었다고 말한 레펜스를 꺾을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영웅
- 2관 아바타: 물의 길
- 3관 아바타: 물의 길, 3000년의 기다림
- 4관 스위치
- 5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6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7관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 8관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 9관 영웅,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젠틀맨
- 10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젠틀맨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



즐거움
문화
산책